



장동석
(주)빙그레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 근 마스크를 매일 오르내리는 한탄강 오염으로 인한 어류의 폐죽음……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정부 정책의 오류인가! 아니면 악덕 기업주의 이기주의인가! 혹은 시민들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일까? 우리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마차 마스크에서 주기적으로 방영하는 거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착각하거나 혹은 어떠한 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례행사쯤으로 오인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경제 및 산업발전이 우선이라는 잘못된 사고속에서 끊임없이 환경을 오염시켜 왔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위 어느 곳에서는 이러한 관행들이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물이며, 공기며, 심지어 토양까지 어느 하나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을 지경이다.

물론 이러한 총체적인 환경오염은 어느 한 개인의 잘못도, 기업주나 정부정책의 잘못도 아닌 모두의 잘못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하였는가를 구분하는 것은 임기응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의 책임전가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한탄강에서 발생한 어류 폐죽음의 주범이 폐수를 무단방류한 기업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폐수나, 하수보다 더 많은 물량을 한탄강으로 방류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임을 지칭하는 건 아닐 것이다. 아마도 한탄강 주변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고 한탄강 유원지내의 위락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도 어류 폐죽음에 일조했을 것이다. 즉 모두가 환경오염의 공범인 것이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무심코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나 싼뜨물이 자연의 자정작용으로 완전 정화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인지하면서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떠한 사건이 터질때마다 목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도 결국은 환경 오염원을 유발하는 원인 유발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 오염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근절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저감 시키고 억제 시키면서 현재보다 좀더 나은 상태로 개선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오염 저감과 억제,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 시민단체, 기업주, 정부 할 것없이 함께 노력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나 지역 이기주의 등의 편협된 사고는 퇴치되어야 한다. 기업도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낙오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움에 있어 균형있는 업체의 분배와 유용한 신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법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자연 학습원이나 동물원 등에 일부러 다녀올 필요없이 인근 강이나 숲에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동감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아니,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